

독일 ‘구체시’와 지역학 수업

정인모*
부산대학교

German ‘Concrete Poetry’ and the Teaching of Areal Studies

Jeong, In-Mo*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German concrete poetry, which emerged in the 1950s, has a character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forms of poetry and was initially criticized or even rejected that it was often referred to as heresy among poetry circles, but nevertheless became a poetry trend yielded international influence for about 20 to 30 years. Here, 'concrete' means 'real', which refers to the real thing or the reality itself, seeing the language itself as the substance rather than the semantic and symbolic aspects of the language, and it tries to establish concrete effects using languages. Therefore, concrete poetry critically views the semantic dominance of languages and pursues its visual and auditory effects. In this paper, these characteristics of concrete poetry were investigated and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using it as a teaching method. Since concrete poetry, simple yet abbreviated, is suitable to use for the classes related to German regional affairs, this study tried focusing on the poetry of Ernst Jandl, who was the representative writer of concrete poetry.

Key words: the concrete poetry, the visual poetry, Ernst Jandl, landeskunde

I. 들어가며

바브라
로이폴트 품
루드비히 뮐러 베나우어 브랑켄부르크
슈타렉 슈트렐 브룅즈 하인즈 뮐러 폴케르트

경기시간:
15시

Wabra
Leupold Popp
Ludwig Müller Wenauer Blankenburg
Starek Strehl Brungs Heinz Müller Volkert

Spielbeginn:
15 Uhr

위의 시(Riha, 1982, p.105)는 2019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 Peter Handke의 작품이다. 1942년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주로 소설과 극작품을 썼던 한트케는 축구광으로 유명하다. 처녀작 『말벌들』(1966)을 비롯, 국내에도 소위 구변극으로 잘 알려진 『관객모독』(1966)을 썼다. 특히 『관객모독』은 진부한 언어를 깨려는 새로운 실험작으로, 틀에 박힌 언어와 그 속에 숨어있는 규범적 가치를 폭로하려고 했다. 그는 문학 기술 매체에 대해 성찰하며, 구체시에 근접하는 시집 『내면세계의 외면세계의 내면세계 Die Innenwelt der Außenwelt der Innenwelt』(1969)과 실험적 방송극 『바람과 바다 Wind und Meer』(1970)를 발표한다.

한트케의 위의 시는 작가들의 시각적 감각에 호소하는 ‘구체시 konkrete Poesie’의 일종이다. 「1968년 1월 27일 뉘른베르크 축구 팀 선발 배치 Die Aufstellung

* 단독저자: 정인모, 부산대학교 독어교육과 (jim@pusan.ac.kr)
http://dx.doi.org/10.15812/ter.60.3.202109.413

des 1. FC Nürnberg vom 27. 1. 1968』라는 제목을 가진,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 시는 내용상 별 특별한 의미도 갖지 않고 축구 선수들 이름만을 나열하고 있어 이런 것을 과연 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하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2-3-5 시스템을 시각적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구체시’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은 언어가 가리키는 사물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라고 한트케가 말하고 있듯, 이 시는 구체시가 특징으로 지닌 언어적 유희를 나타내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축구가 자율적 놀이가 아니라 조직과 체제의 산물임을 풍자하고 있다. 언어가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통념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직감하게 하려는 이런 시도는 브레히트의 낯설게 하기 기능을 통한 사회비판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리하 Karl Riha 교수는, 한트케의 이런 시가 축구를 일러스트나 그래픽, 만화 등의 예술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결국 구체시 형식도 주제를 문학으로 승화, 확장시킬 수 있는 실험적 형상화 시도로 보았다(Riha, 1982, p.239).

이처럼 1960~70년대 선풍을 일으킨 독일어권의 ‘구체시’ 작업은, “본인은 시인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던(Handke, 2019, p.315)” 한트케조차 시도할 만큼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II. 전후의 독일 문단 상황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차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은 1949년 동서독 분할의 운명을 겪게 된다. 문학에서도 서독은 나치 통치 13년간의 문화적 단절 혹은 공백기로 인해 ‘벌채문학’, ‘0시점’, ‘새로운 시작’ 등의 담론 하에 탈 정치적 성향을 보였고 해외의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이에 반해, 동독은 괴테, 실러의 바이마르 고전주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에 입각하여 고전주의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려 했다.

통상적으로 전후 서독문학의 흐름은 3국면으로 나뉘는데, 전쟁 직후부터 1960년 중반까지를 ‘문학의 도덕화 Moralisation’, 60년 중반부터 70년 중반까지를 ‘문학의 정치화 Politisierung’, 그 이후 1990년 통일까지를 ‘문학의 사유화 Privatisierung’로 구분된다. 즉 첫 단계

가 전쟁 이후 독일의 폐허 상황 및 ‘47그룹’을 중심으로 탈정치적 성향을 보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1968년 학생운동을 정점으로 ‘문학의 죽음’이 선언되고 문학의 정치화가 극도에 다다른 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과열된 정치화 상황이 진정되면서 개인의 경험과 사(私)적인 성찰이 주를 이루던 신주관성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의 독일 시(詩)는 크게 두 조류로 나뉜다. 하나는 고트프리트 벤 Gottfried Benn의 정시(靜詩, Statisches Gedicht)류, 즉 절대시라 불리는 비의적 순수시 계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브레히트 B. Brecht의 영향이 컸던 소위 참여시 계열이다. (이 조류 외에 에리히 프리트 E. Fried, 라이너 쿤체 R. Kunze, 자라 키르쉬 S. Kirsch, 페터 후헬 P. Huchel 등이 중심이 된, ‘새로운 자연시’를 표방하는 작가 그룹도 있었다.)

절대시의 대표적 시인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코트프리트 벤 외에 잉에보르크 바흐만 Ingeborg Bachmann, 파울 첼란 Paul Celan 등이 있고, 대표적 참여시인으로는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 Hans Magnus Enzensberger를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다루는 구체시는 이 두 경향과는 전혀 다른 시작(詩作) 형태이다. 다시 말해 구체시는 이 둘의 경향에 모두 반하는 획기적 형식을 띠면서 기존 창작 행위에 도전장을 내민다. 특히 고트프리트 벤을 비롯하여 절대시 입장을 고수한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해석학적 자율성을 추구했다면, 구체시는 두 계열의 방향을 벗어나 제3의 길로 나간다. 즉 일체의 이념을 비우기 위해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도입한다.

결국 위의 두 경향 모두가 ‘의미학적 시 Semantische Poesie’를 지향한다면, 구체시는 이런 의미학적 시를 거부하고 반 서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구체시의 대표 시인으로, 구체시의 ‘시조’라 볼 수 있는 스위스의 오이젠 고펠링어 Eugen Gomringer와 독일의 헬무트 하이센뷔텔 Helmut Heißenbüttel, 프란츠 몽 Franz Mon, 팀 울리히스 Timm Ulrichs,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얀들 Ernst Jandl 등을 들 수 있다.

III. 구체시의 특징

‘구체시’의 직접적 태동은 1950년대 스위스 작가 고펠링어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어의 전위적 실험을 표방했던 19세기 말 '빈 모더니즘', 아르노 홀츠 Arno Holz의 독일 자연주의, 심지어 18세기 끝 무렵의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근대성 표방(프리드리히 쉐레겔 Friedrich Schlegel)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 특히 '빈 모더니즘'은 기존의 문학형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문학 형식을 시도하였으며,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이 태도는 20세기 초 독일 지역에서는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의 시작(詩作) 형태로 이어진다.

그런데 1950년 중반에 시작된 구체시는 이러한 언어 비판 전통 속에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실험적 태도의 극단의 형태를 띤다. 다만 구체시가 위의 전통들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언어에 대한 회의 및 성찰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시에서는 문장구조가 단절되고 술어가 자주 생략되므로 의미적 전달 기능이 불명료해진다. 언어 자체가 창작의 재료가 되며, 이러한 재료 중심적인 구체시에 대해 고펜어도 "구체적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언어를 재료로 하여 창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학 형태는 그 문학의 수단인 단어에 종속된다(김광규, 1984, p.180)"고 말한다.

구체시는 전통적인 '적는 시'(읽는 시)에서 '소리시'(발성하는 시, 청취하는 시)로 나아가는데, 문장 혹은 문법 형식이 지켜지지 않고, 주로 이른 바 청각시, 시각시의 형식을 취한다. 또 반통사적 문장배열이나 활용변화, 그리고 동사의 부정형(不定形, infinitiv) 사용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구체적 konkret'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자연적으로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때 '구체적'이라는 함은 '사실 real'을 의미한다(Kopfermann, 1974, p.XI). 즉 실제적인 것, 현실성 자체를 말하며, 언어의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면보다도 언어 자체를 하나의 질료(質料)로 보고 언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다.

따라서 구체시는 언어를 의미상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보지 않고 '구체적 질료 konkretes Material'로 받아들이며, 언어는 이미 연결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구체시는 언어의 의미 지배를 비판적으로 보고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추구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활자, 단어, 문장 등의 낯선 조합을 시도하며 문학 장르나

예술 간의 전통적 경계가 다시 눈에 띄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구체시는, 미술가 몬드리안 Piet Mondrian과 칸딘스키 W. Kandinsky가 주도한 '구체 예술'과, 음 자체를 질료 그 자체로 이용하려 했던 '구체 음악'과도 관계가 있다.

아울러 이 구체시는 프랑스의 스테판 말라르메 Stéphane Mallarmé, 아폴리네르 Guillaume Apollinaire, 영국의 에즈라 파운드 Ezra Pound, 카를로스 윌리엄스 Carlos Williams, 독일의 아르노 홀츠, 다다이즘, 미래주의, 초현실주의, 그리고 그 후에는 60년대에 게르하르트 뢰름 Gerhard Rühm 등이 소속해서 활약한 '빈 그룹 Wiener Gruppe'(1967)과도 관계가 깊다.

슈넬 Ralf Schnell 교수는 구체시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경계 넘음 Grenzüberschreitung'과 '축소 Reduktion'가 그것이다(Schnell, 1993, pp.266-267). 전자의 형태로는, 텍스트 시각화, 텍스트 구조 변경, 텍스트 관계망 해체, 청각적 한계 돌파와 해석의 개방성, 텍스트의 언어와 형식의 일치라는 내적 상응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형태로는, 통사 파괴, 의미 무력화, 각운이나 운율, 시행 포기 등을 들 수 있다.

IV. 구체시 형태

구체시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각시이다.

우선, 앞 장에서 말한 구체시의 반문법적 실험문학 형태는 독일 시인 하이센뷔텔에게서 잘 나타난다. 그는 1968년에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Beutin, 1992, p.554)"고 하였는데, 여기서 '허용'이란 의미 지시관계의 완전한 해체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는 "문학이란 언어로만 이루어지며, 언어 외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언어자율성 신조를 가지고 재료 자체에 승부를 건다. 즉 그의 시어(詩語)는 언어의 외부에 지시대상이나 상징 또는 의미를 지닌 지표 Index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기표들이 자율적으로 환유되는 언어를 기술하며, 이러한 시들이 1960년부터 약 10년간 「텍스트 북 Das Textbuch」이라는 책으로 출판된다.

다음의 하이센뷔텔 시(詩)(Heißenbüttel, 1980, p.139)는 'zurück'이라는 부사를 '~로 zu'라는 전치사와 '뒤움직이다 rücken'이라는 동사를 연관 지으면서 '뒤

rück'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시각적 효과를 내려하고 있다.

뒤 로 움직인다
뒤 로
뒤 움직인다
로
뒤 로
뒤
뒤
뒤
로 움직인다
로
뒤

zu rück rücken
zu rück
zu rücken
rück
zu rück
zu
zu
zu rücken
rück
zu

이런 시각시 형태는 구체시의 대표적 양식이며, 많은 구체시 작가들이 구사한 시각시를 다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단어들이 직접 이동하므로 접속사와 동사가 서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 의미를 더 생동감 있게 체감할 수 있다.

다음 시는 구체시의 대가로 여겨지는 ‘빈 그룹’ 일원인 에른스트 안들의 시각시 「여행 Reise」(Gomringer, 1972, p.79) 이다. 이 시에서도 단어의 의미가 시각화되어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바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에른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쪽으로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bayayayayayayayayayayayayayayayayayern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nach

에른스트 안들은 이미 소위 독일 60, 70년대를 풍미했던 구체시의 대표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프리드리히 아흐라이트너 Friedrich Achleitner, 한스 칼 아르트만 Hans Carl Artmann, 콘라트 바이어 Konrad Bayer, 게르하르트 뎀 등과 함께 ‘빈 그룹’에 속하면서, 언어유희와 기지, 단어 배치, 끊임없는 실험적 시로 자신의 시 세계를 형성해 나갔다. 1953~1964년 사이에 결성된 ‘빈 그룹’은 이전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접목되어 있으면서, 그로써 언어비판적 문학예술 개념을 표방하였다.

안들은 1952년부터 1957년 사이 『새로운 길들 Neue Wege』 잡지에 주로 구체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프리드리케 마이뢰커와 함께 「소리와 루이제 Laut und Luise」(1966) 시집을 함께 내고 여기서 언어 실험과 그림 시를 통해 언어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안들은 1984년 그 유명한 게오르크 뷔히너 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세계적 작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안들은 또 필립포 토마소 마리네티의 미래주의의 기교 선언과 고펜어, 하이젠뷔텔의 문장구조 파괴, 부정법 동사 활용 등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안들은 고펜어의 '배열' 형식을 보고 큰 감명을 받는다. 안들이 구사한 인쇄면 구성, 그림 상징, 문자의 순환 배치 등에서 문자의 시각화가 잘 드러나며, 시각시에 나타나는 안들의 이러한 언어는 인공언어가 아니라 실제 언어에 접근해 있다.

우리가 시학을 의미학적 시학과 기호학적 시학으로 나누어 볼 때, 구체시는 기호학적 시학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사회적 현실이나 그 모든 것의 실태를 언어의 의미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시화시킨다면, 기호학적 시학은 언어를 의미 영역의 한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기존의 의미에서 출발하는 언어 정신보다는 언어를 구체적 재료로 보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프랑스 언어학자 소쉬르에서 출발한 소위 기호학의 측면에서 문학을 보려는 경향이 20세기 중반 이후 줄곧 제기 되었으며 구체시에도 이러한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이젠뷔텔과 안들의 시 외에도 구체시 문학에 진정한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이겐 고펜어의 대표적 시가 있다.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침묵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schweigen

위의 시(Gomringer, 1972, p.58)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뺄으로써 입모양을 나타내 보이며, 결국 침

묵이 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에서 분리 시도는 동등층의 통사로부터 각 단어를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말라르메에 기대고 있는 고펜어는 '배열'이라는 형식을 통해 두각을 나타냈다. 고펜어는 언어의 살아 있는 질서원칙에서 더 이상 시행 Vers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시행에서 '배열'로 전이를 주장했다. 이때 '배열' 이야말로 단어에 기원하고 있는, 문학의 가장 단순한 형상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결핍 Verknappung과 단순화 Vereinfachung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오히려 집중과 단순함을 도모하기 때문에 시의 본질과 상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질서 속에 무질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팀 올리히스의 시(Gomringer, 1972, p.142)도 위의 고펜어 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무질 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질서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unordn 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ordnung

여기서 '질서 ordnung'라는 단어가 세로로 11개씩 총 22개 등장하는데, 그 한 가운데 반대의미의 접두사 'un'

이 앞으로 나오면서 ‘질서’ 속의 ‘무질서 *unordnung*’를 나타내 보인다. 이 시는 문자와 이미지라는 서로 다른 매체성 사이의 차이와 긴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시는 언어의 물질성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전환됨으로써, 단어가 가진 매체성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의 내용으로 만드는 상호매체적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 시에서 보듯 전통적인 매체의 경계가 구체시에서는 해체되며, 이러한 상호매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과 예술의 분리를 철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태명, 정인모, 2020, p.302).

구체시는 대체로 언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반정치적 성향을 띠지만, 다음의 시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한스외르크 마이어 *hansjörg mayer*의 시(Gomringer, 1972, p.96)가 이를 잘 보여준다.

sau
aus
usa

이 시는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암돼지(sau), 나가(aus), 미국(usa)라는 우리말 번역은 이 시가 나타내려는 의미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가로로 읽으나 세로로 읽으나 신기하게도 같은 의미를 갖게 한다.

한스 외르크 외에 프란츠 뭉 같은 작가도 구체시의 비판적-해방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여러 국가에서 등장한 구체시는 위에서 보듯 다양한 형식이나 유형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구체시를 활용한 지역학 수업

위에서 말한 대로 구체시는 시가 어떤 의미론적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보다, 축약된 단어나 문장의 배열 등 언어 자체를 시각 혹은 청각적 자료로 하여 독자들과 소통하려고하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다시 말해 독일 지역학 *Landeskunde* 수업에 있어 구체시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역 사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용이한 편이다.

여기서는 구체시 수업의 예로 엔른스트 얀들의 「어떤 전환점 표기 *Markierung einer Wende*」(1966)(Bischof, Kessling, Krechel, 1999, p.46)를 살펴보자.

1944	1945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Mai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Krieg	

우선 칠판이나 영상 매체에 위의 시(원문)의 각 행을 쓴다.

쓰인 이 시를 바탕으로 단계적 수업을 진행해 본다. 즉 텍스트 분석 전과 텍스트 분석 중, 텍스트 분석 후로 나누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텍스트 분석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1) 독일어 *Krieg*와 *Mai*의 뜻?
- 2) 1944년과 1945년의 의미, 그리고 왼쪽에 *Krieg* 12개가 씌어졌지만, 오른쪽 열에서 *Krieg* 4번 이후 *Mai*가 쓰인 이유? 즉 *Krieg*와 *Mai*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전쟁 및 5월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텍스트 분석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이 좋겠는가? 또 작가 얀들의 이 시의 제목은 실제로 무엇인가? 실제 제목 ‘어떤 전환점 표기 *Markierung einer Wende*’는 무엇을 말하는가?
- 2)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때가 언제인가?
- 3) 5월은 독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4) 중부 유럽이나 독일을 생각할 때 5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가?

이 시는 많은 다른 구체시들처럼 단어의 배열을 통해 역사적 시점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심 되는 키워드는 1945와 전쟁과 5월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수업시간에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 분석 이후에는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1) 5월 Mai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기대, 즉 희망찬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5월 대신 다른 월(月)에 해당하는 여러 단어를 넣어 학습할 수 있는가?

3)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는 상황에 대한 연설문이나 사진, 통계 자료들을 더 살펴보고 이것을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전쟁 40주기를 맞은 1985년에 행한 바이체크 Richard von Weizsäcker 대통령의 연설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Bischof, Kessling, Krechel, 1999, p.50). 이 연설문을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텍스트 부분을 표기해 보고 또 왜 그런지를 알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느낀 점(이를테면, 동서독 분단 날짜, 베를린 장벽 건설날짜 등)을 자기 나름대로 직접 시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창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독일 전쟁의 끔찍한 역사적 과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위에 제시된 시의 형태가 '구체시'의 일종임을 알리고, 이러한 독일의 구체시에 대한 특징과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위와 같이 구체시를 이용한 지역학 수업은 독일의 문학 및 지역학 수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구체시는 시각에 직접 작용하므로 이해하기 쉽고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문학수업에서 지역학적 방향은 독일문화 영역에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오게 한다. 지역학은 여러 영역, 즉 문화, 역사, 지리, 정치 등의 내용을 다루는데, '낮선 나라에서 낯설어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Bischof, Kessling, Krechel, 1999, p.7)'이 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표 끓는 것, 초대받는 것,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 등 외국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을 주제로 삼아 구체시의 형식으로 표현해 보면 학생들은 독일어권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일상생활의 상황들을 구체시로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년픽션 텍스트, 문학 텍스트로 창작해보는 것도 지역학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나가며

구체시는 50년대 중반에 독일어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곳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이런 형식의 영향은 남미, 심지어 일본에까지 미칠 정도로 전 세계적이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카를로스 윌리엄스 등의 작가들이 이러한 경향을 따랐다.

구체시를 다시 정의해 보자면, 문학용어 사전에는 “언어를 의미 전달의 매체로 사용하지 않고 단어, 음절, 자모 같은 구체적인 자료 자체의 형태와 구성을 이용하는 현대적 실험시”라고 되어 있는데(김병옥 외, 2001, p.28), 전통적 시 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언어와 문장의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거두려는 획기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구체시 시인들이 보기에 전통적 언어는 시어(詩語)로서 부적절하며, 진실을 표현하거나 포착하기에 미흡한 수단이었다. 기존 언어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지향하려고 시도한 것이 구체시 운동이다. 그 부정성의 이유는 아마도 50년대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언어가 전체주의 파시즘 시대에 이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비판적 태도에서 시작된 구체시 운동은 언뜻 보기에 단순한 언어유희의 성격이 있지만 유쾌한 관찰로 보이기도 한다. 구체시는 기존 독일 시를 이념으로부터 해방시켜 독자들의 예상을 뒤엎으며 시 자체를 독자의 자유로운 연상에 맡긴다.

‘빈 그룹’에 따르면 구체시와 같은 새로운 시는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가 단순화되어야 하며 글자의 기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는 전체로 또 부분적으로 단순하고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시는 빠른 소통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직접적 언어, 즉 쓰기 편하고 읽기 편한 빠른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다. 이런 단순화의 방법으로 슈넬 교수가 말한 축소, 생략 등이 사용되며, 이로써 이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덧붙여 구체시를 이용한 지역학 수업이 용이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역학 수업에서 구체시 활용은 독일문화영역에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구체시가 독자층에 넓게 수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되는 이유는, 이동승 교수의 말대로, 재료로서의 언어도 순수 음향적 혹은 시각적 현상일 수 있고, 의미론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언어적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이동승 외, 1991, p.103).

하지만 어쨌든 1950년 중반부터 70년대까지 특히 독일 어권 시문단의 한 부분을 채어나갔던 구체시는 언어를 구체적 질료로 본 가장 과격한 실험 형식이었으며 전후 독일 문단에 등장한 혁명적이고도 전위적인 시 형식이었음에 틀림없다.

요약

1950년대에 발생한 독일의 구체시는 시단의 이단아라 불릴 정도로 전통적인 시작 형태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의미를 지니며 20~30년간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한 시 경향이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 함은 ‘사실 real’을 의미하는데, 실제적인 것, 현실성 자체를 말하며, 언어의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면보다도 언어 자체를 하나의 질료(質料)로 보고 언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다. 따라서 구체시는 언어의 의미 지배를 비판적으로 보고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시의 이러한 특징들을 알아보고, 또 이것의 교수법적 활용을 시도한다. 단순하면서도 축약된 구체시는 독일 지역사정 수업에 활용되기 적합한 것으로, 여기서는 구체시의 대표 작가 예른스트 안들의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구체시, 시각시, 예른스트 안들, 지역학

참고문헌

- 김병옥 등(역음) (2001).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동승 등(편) (1991). *전후 독일문학*, 서울: 탐구당.
- *박철호 (2007). *새롭게 읽는 독일 현대시*,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 *안삼환 (2016). *새 독일문학사*, 서울: 세창출판사.
- 김광규(편) (1984). *현대 독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최태명, 정인모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학과 예술*,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Arnold, Heinz Ludwig(Hg.) (1975). *Text + Kritik. Konkrete Poesie II*, 2. Aufl., München.
- Beutin, Wolfgang (1992).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4판, Stuttgart.
- *Biechele, Markus & Padrós, Alicia (2003). *Didaktik der Landeskunde*, München.
- Bischof, M., Kessling, V., & Krechel R. (1999). *Landeskunde und Literaturdidaktik*, Kassel.
- *Bortenschlager, Wilhelm (1978).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Wien.
- *Brenner, Peter J. (2004). *Neue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Tübingen.
- *Brenner, Peter J. (2008). *신 독일문학사* (정인모, 허영재 역). 서울: (원서출판 2004).
- *Ernst, Ulrich (1991). *Konkrete Poesie*, Wuppertal.
- *Fischer, Ludwig(Hg.) (1986). *Literatu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1967*, München.
- *Forster, Heinz & Riegel, Paul (1998).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Bd. 12. München.,
- Gomringer, Eugen (1972). *Konkrete Poesie*, Stuttgart.
- Handke, Peter(2019). *시 없는 삶* (조원규 역), 서울: ITTA. (원서출판 2007).
- Heißenbütel, Helmut (1980). *Textbücher 1-6*, Stuttgart.
- *Jandl, Ernst (1985). *누가 숲으로 오는가: 예른스트 안들 시選* (박상배 역), 부산: 열음사.
- *Killy, Walther(Hg.) (1989). *Literatur Lexikon. Autoren und Werke deutscher Sprache*. Bd.4, München.
- Kopfermann, Thomas(Hg.) (1974). *Theoretische Positionen zur konkreten Poesie*, Tübingen.
- *Leubner, M., Saupe, A., & Richter, M. (2010). *Literaturdidaktik*, Berlin.
- *Luscher, Renate (2012). *Landeskunde Deutschland*, 7. Aufl., München.
- Riha, Karl (1982). *Fußball literarisch oder Der Ball spielt mit dem Menschen*, Frankfurt a. M..
- Schnell, Ralf(1993). *Geschichte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seit 1945*, Stuttgart.
- *Sørensen, Bengt(1997).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 *Waldmann, Günter(2000). *Produktiver Umgang mit Literatur im Unterricht*, Hohengehren.
- * 본문에 직접 인용하지 않았어도, 전체 논문 작성이나 기술에 도움을 주었던 모든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였음.